

김정일애국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사상정신적량식

김 강 민

우리 조국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오늘의 현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애국의 한길로 변함없이 곧바로 나아가는 참된 애국자를 요구하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밝은 등대로, 투쟁과 생활의 라침판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인민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밝은 등대로, 투쟁과 생활의 라침판으로 될것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우리 인민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인민들에게 애국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밝은 등대이기때문이다.

애국자의 한생은 참된 애국의 길에서 빛난다. 애국을 지향하고 애국으로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애국의 참된 길을 모른다면 애국의 숭고한 뜻을 이룰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참된 애국자로 될수 없다. 참된 애국자가 되자면 참된 애국의 길을 정확히 깨닫고 그 길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대대손손 누려갈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기도 하시였고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는 두고온 조국과 인민들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러보곤 하시였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관철하여도 철두철미 조국과 인민의 리익과 결부시키시였고 언제나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우선시, 절대화하시며 모든것을 인민의 지향과 요구, 리익에 철저히 복종시키신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구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로지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는 방패가 되시고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시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심장을 불태우시며 불철주야 초강도강행군, 심야강행군, 눈보라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었을뿐만아니라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시간을 쪼개가시면서 야전식으로 살며 투쟁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소중히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모든것은 결코 추상적인것이 아니였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로부터 시작하여 길가의 조약돌 하나에 이르기까지 비록 눈에 띄이지 않는,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스쳐지나 보내군 하는 사소한것일지라도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는 내 조국의 귀중한 한 부분이였고 가꾸고 빛내여야 할 내 나라의 소중한 재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게 되는 자그마한 야산이나 시내물도 그냥 스쳐보내신적이 없으시였으며 별거숭이산을 보시면 못내 가슴아프시여 걸음을 떼지 못하시였고 수림화가 잘된 주변경치를 보시면 더없이 기쁘시여 사회주의선경이라고 하시며 그것을 가꾼 군인들과 인민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 세상에 위대한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 조국과 인민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오신 절세의 애국자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김정일애국주의는 애국으로 산다는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숭고한 애국주의이다.

김정일애국주의야말로 우리 인민들에게 참된 애국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애국자로 억세게 성장하게 하는 밝은 등대이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우리 인민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사상정신적 양식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 인민들에게 애국의 한길로 변함없이 곧바로 나아가도록 하는 투쟁과 생활의 라침판으로 되기때문이다.

참된 애국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새겼다고 하여 참된 애국자의 면모가 완전히 갖추어지는것은 아니다. 참된 애국자의 자세는 애국의 가장 올바른 길을 정확히 깨닫는것과 함께 그에 기초하여 애국의 한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데 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인민들에게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 후대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하는 투쟁과 생활의 라침판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선 우리 인민들이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숭고한 인민관을 바탕으로 하는 애국의 참다운 귀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에서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의 품이라고 노래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수령이며 조국의 품은 바로 수령의 품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수령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에 의해서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지켜지고 담보된다. 조국은 단순히 태를 묻고 나서자란 고향산천이 아니라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이며 그것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피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수령에게 충실하는것이자 조국에 참답게 충실하는것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애국주의의 최고표현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숭고한 조국관을 지니시였기에 한평생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가 되시여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영원한 수령님의 조국으로 빛내여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수령님의 념원대로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충정의 마음과 불타는 애국헌신으로 빛나게 수놓아져있다.

조국은 곧 수령이라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있는 **김정일**애국주의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부강조국을 건설하는 투쟁에서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력한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된다.

이민위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지론인 동시에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좌우명이였다.

조국의 운명을 인민의 운명과 일치시키시고 인민을 위한 조국을 건설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공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하시며 언제나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시였으며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끝없는 헌신의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신조였으며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꼭 차있었다.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고 인민을 절대적으로 위하는 고결한 사상감정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속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지금도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라고 한 《인민사랑의 노래》는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한평생 인민을 마음속에 안고계시며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한길에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깊이 절감하게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지니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오신 **김정일**애국주의는 이렇듯 가장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숭고한 인민관에 바탕을 두고있는 애국주의인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된 애국의 한길로 나아가도록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또한 우리 인민들이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고 조국의 밝은 미래, 후대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미래사랑의 후대관으로 일관되어있는 애국주의이다.

후대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이것은 **김정일**애국주의에 세차게 맥박치는 일관한 념이고 숨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평생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전설을 수놓아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이 최악의 시련을 겪던 시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온 나라 천만군민을 그 실현으로 불러일으키신것도, 고생하는 인민들을 두고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귀중한 자금을 기계제작공업의 현대화에 돌리신것도, 조국산천을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시려 온 나라에 수림화, 원

림화의 열풍을 일으키신것도 다 우리의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서였다.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먼 후날에 가서 후대들이 그 덕을 볼수 있도록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 하여야 하며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다.

후대들의 삶의 터전을 가꾸는것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그들을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다른 사업에서는 우리 세대가 다하지 못한것을 후대들이 보충할수 있지만 후대를 키우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누가 보충할수 없으며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는것을 후대들에 대한 최대의 사랑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을 이끄시는 전기간 수천수만 가지 나라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새 세대들을 훌륭히 키우는 사업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후대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떠받들려 우리의 새 세대들이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역센 기둥감들로 역세계 자라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장군님의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게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지니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오신 **김정일**애국주의는 이렇듯 가장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으로 일관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숭고한 미래관과 후대관을 가지고 조국의 밝은 미래, 후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면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한다.

이 모든것은 **김정일**애국주의야말로 우리 인민들이 숭고한 조국관과 인민관, 후대관을 지니고 참된 애국의 한길로 곧바로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참된 애국자로 역세계 자라나게 하는 사상정신적량식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애국헌신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